



화합의 선을 평화의 대행진

제4회 광주정음성국제음악제 22~25일 광주문화회관



스윙글 싱어즈

세계적 아카펠라 '스윙글 싱어즈' 공연 피아니스트 손열음 협연 등 행사 다채

'중국의 3대 음악가'로 꼽히는 광주 출신 정음성 선생을 기리는 제4회 광주정음성국제음악제가 22일 전야 공연을 시작으로 25일까지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화합의 선을, 평화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정음성국제음악제는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개최하는 게 특징. 음악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최규철)는 지난 6월 정음성 선생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실내악곡으로 2008 대구국제현대음악제에 참가했으며 지난 9월 27일에는 중국 남창에서 '중국 남창 정음성 음악회'를 열었다.

22일(오후 7시) 열리는 전야제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스윙글 싱어즈가 관객들을 만난다.

5번의 그래미상 수상, 3천 500회 해외 공연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스윙글 싱어즈'는 악기 반주 없이 목소리 하나로 재즈, 클래식,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내는 그룹이다. 1963년 영국에서 창단된 스윙글 싱어즈는 이번 공연에서 라벨의 '볼레로', 쇼팽의 '전주곡 E 단조', 비틀즈의 'Drive my car',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20여곡을 선사한다.

23일(오후 7시) 열리는 개막 공연은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이상환·이신정)과 함께하는 다양한 협연 무대로 꾸며진다.

주제의 '경기병 서곡'으로 막을 여는 개막 공연에서는 중국의 소프라노 여소운과 테너 정파가 정음성의 곡인 '연안성'을 들

려하며 중국 전통 악기인 얼루 협연과 가야금 병창(춘향가 중 '사랑가')도 준비했다. 또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 도쿄 필하모닉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씨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24일은 지난 9월 광주 방문단의 중국 남창 공연에 대한 답방 공연으로 마련된 '남창의 날' 행사가 펼쳐진다. 가면무, 무용, 기악, 경극, 독주, 합창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 공연 형태로 진행되며 비파 연주자 주비씨 등이 참여한다.

25일 오후 5시 열리는 '아시아 한가족' 행사에서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음악인들이 관객들을 만난다.

일본의 바이올리니스트 진 마츠모, 베



손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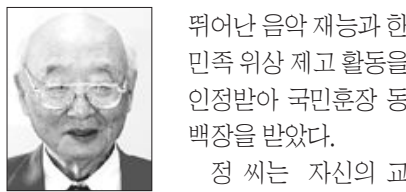
트남의 바이올리니스트 트란 후 록, 싱가포르 피아니스트 벤자민 로, 광주에서 활동하는 리틀스쿨피아합창단과 최근 열린 광주여성합창페스티벌 한가족음악회에서 인상한 '준석이네' 등이 출연,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쇼팽의 '발라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 사람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들을 연주한다. 문의 062-511-12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민족 음악가 정추씨 광주 방문

올해 열리는 정음성국제음악제에는 이 지역 출신인 민족음악가 정추(사진·86)씨가 광주를 방문, 의미를 더한다.

1953년 소련으로 유학, 차이코프스키 음대에서 공부한 정 씨는 반(反) 김일성 체제 운동으로 카자흐스탄에 망명, 50년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작곡 활동과 독림 운동가 후손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 씨는 1990년 카자흐스탄 공훈 문화인 칭호를 얻었으며 2003년 국내에서도



뛰어난 음악 재능과 한 민족 위상 제고 활동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정 씨는 자신의 교향시 '조국'이 연주되는 정음성국제음악제 개막 행사에 참여하며 광주시 양림동 생가 방문(24일), 모교인 광주일고 학생탐 참배(26일)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상필 천연 염색전

23~31일 광주 동명동 '아트 스튜디오'

이상필(동신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씨가 23~31일까지 자신의 작업실인 '아트 스튜디오'(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관람객들이 작가의 작업실에서 실제 작품이 창작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창작 열기도 느낄 수 있는 이색 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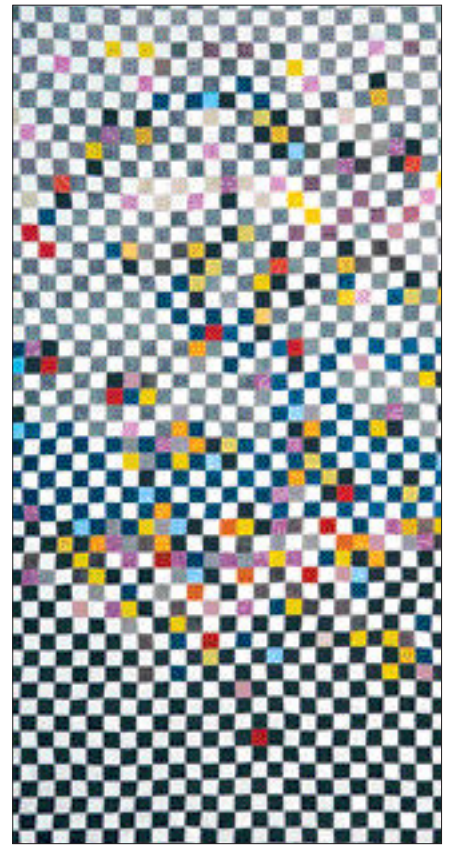
'우주의 조화 속에 동서양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씨는 처자·혼화·자운영 등에서 추출한 색을 비단 등에 물들인 설치 작품과 베가에 그림을 그린 신작을 선보인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풍경을 그리려는 부감법(俯瞰法)으로 지상의 건물과 땅 등의 모습을 비단에 물들인 설치 작품은 이씨의 대표작들이다. 천의 조각을 이어붙여 현대적인 감각을 살렸고, 색의 대조와 변화를 통해 한국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게 했

다. 이번 전시에서 함께 소개되는 '꿈 속의 오케스트라'는 베가에 아크릴로 페인팅한 작품으로, 꿈과 현실 세계의 미묘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미술평론가 정금희(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씨는 "아름다운 선과 색의 조합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상상과 조화를 강조했고, 진정한 인생 여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했다.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동대학원 출신인 이씨는 20여 년 전부터 천연 염색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이후 밀라노, 베이징, 동경 등지에서 매년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천연염색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아시아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430-4077. /오광록기자 kroh@



'네모1'

장화왕후의 삶 오페라로

빛소리오페라단·나주시 공동 창작

24일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무대에

태조 왕건의 두번째 부인으로 고려 건국의 숨은 공신인 나주 출신 장화왕후의 삶이 오페라로 만들어졌다.

(사)빛소리오페라단(총감독 최덕식 광주대 교수)은 나주시와 공동으로 창작 오페라 '장화왕후'를 무대에 올린다. 24일 오후 7시30분 나주 영산강문화축제 주무대, 30일 오후 6시30분 나주문화회관.

왕건의 부인인 고려 두번째 왕인 혜종의 어머니인 장화왕후는 통일 국가를 세우려는 왕건을 보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부각된 인물.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오페라 '장화왕후'는 공예의 명령으로 나주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금성싸움을 벌이던 왕건이 나주 오씨 집안의 버들아씨(장화왕후)를 만나 사랑을 만들어가는 순간부터 솔한 전투과정을 거쳐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이어 피날레는 온 백성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리는 장화왕후의 왕후 추대식이 장식한다.



오페라 대본은 시인 김준태씨가 집필했으며 이철우씨가 작곡을 맡았다. 나주이화실내악단(지휘 임흥규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광주대학교합창단(지휘·구현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 서영무용단(안무 서영)이 함께 무대에 오르며 이영기(계명대 교수)씨가 전체 연출을 맡아 작품을 완성했다.

주인공 장화왕후 역은 소프라노 유형민씨가 맡았으며 태조 왕건 역에 바리톤 김기보, 장화왕후 부모 역에 바리톤 마명준과 메조소프라노 전진희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1-330-85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토미 엠마뉴엘 광주 공연

23일 라마다 플라자 호텔

청명하고 아름다운 연주로 사랑받는 세계적인 어쿠스틱 기타리스트 토미 엠마뉴엘(사진)이 광주에 온다. 23일 오후 7시10분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 스카이 라운지.

호주 출신인 토미 엠마뉴엘은 30여년간 1년 300회 이상의 공연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다. 셋 앳킨스, 에릭 클랩튼, 스티비 윈드 등 세계 정상급 뮤지션들과의 협연으로 널리 알려졌다. 또 어쿠스틱 기타 한대로 마치 마술을 부리듯 현란한 연주를 선보여 '공인 기타리스트'(C.G.P.-Certified Guitar



Player)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광주 MBC 문화콘서트 난장특집 '토미 엠마뉴엘'편으로 녹화, 오는 11월 중순 광주·대전·포항·마산 MBC를 비롯 해 수도권지역 지상파DMB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관람신청은 '난장' 홈페이지(www.kjmbc.co.kr/nanjang)를 통해 하면 된다. /이은미기자 emlee@

미술은행 공모 작품 접수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이 공모제를 통해 구입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을 22~28일 접수한다. 응모 부문은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순수공예, 순수사진, 뉴미디어 및 설치작품 등이며 응모 자격은 개인전 1회이상 또는 기획전 및 그룹전 10회이상 참가 경력이 있는 대한민국 작가로, 창작 활동 경력 3년 이상은 제외한다.

심사를 통해 11월24일 공모제 구입 작품 200여점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미술은행 홈페이지(www.artbank.go.kr) 참조, 문의 02-2188-6337.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area containing various real estate, financial, and service advertisements. Includes titles like '부동산 대출', '남성강연회', and '중고자동차 전자증 매입·판매'.